

“일감몰아주기, 공정경제 · 혁신성장 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 전문경영인과 간담회서

“조사·제재 등과 함께 제도적 개선책도 강구
잘못된 관행 지속하기보다 선제적 개선해야
혁신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시장경쟁 환경 조성”



조성하고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
했다.

한 쪽의 시각에 치우치지보다 균형
잡힌 재벌개혁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서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1년이
되면서 각계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평
가를 내놓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너
무 느슨하고 느리다고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을 거칠게 옥죌다고
비판한다”고 했다.

다”며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
제를 만들기 위
해 큰 기업이 아
니라 혁신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시장경쟁 환경

그러면서 “공정위는 한쪽의 시각
에 치우치지 보다는 현실에 맞게
양쪽의 비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
려고 한다”며 “양쪽 시각의 가운데
지점에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
를 맞추고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
에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
다.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재계의 참여도 당
부했다.

그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
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체법과 절
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제
논의 중인 법안의 내용 중에는 지주
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
에 직결되는 사안도 포함됐다”고 소
개했다.

이어 “이들 사안에 대해 그간 실

태조사를 해왔고 머지않아 분석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재계에 큰
영향을 미칠 현안으로서 올해 정기
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
고 있는 만큼 재계에서도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
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금처럼 지주 재계와의 만남 자리를
만들지는 않고 1년 후 정부 출범 2년
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한다”면서도 “대신 재
계에서 정부의 기업정책 또는 혁신성
장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주시기 바란
다”고 했다.

또 “앞으로 간담회 참석자를 계속
확대하지는 않고 주제에 따라 참석범
위를 달리하는 등 소통을 보다 내실
있게 이어가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
다.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일
감몰아주기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
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
인과의 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나아가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악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에 대
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 제재 등과 함
께 제도적 개선책도 강구하고 있다”
며 “기업도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
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
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는 선제적
으로 개선해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
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구축을 위해
공정위는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혁신에 매진하고 있



이스타항공이 도입하는 '보잉 737 MAX 8'.

이스타항공, 보잉 737 MAX 8 기종 도입

이스타항공이 차세대 신기종 도입을
위한 LOI를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보
잉 맥스 기종을 도입한다.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리스사와 보잉
737 MAX 8 도입관련 최종 LOI를 체
결하고 올해 12월까지 2대 도입을 확
정 지었다고 10일 밝혔다.

보잉 737 맥스는 항속거리가 길고
연료 효율이 기존 B737-800기종보다
약 14%가량 향상됐다.

좌석 수는 기존 NG 800기종과 동일
한 189석이지만 운항거리가 6570km로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등 주요 중장
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하다. 또 최신
의 CFM 인터내셔널 LEAP-1B엔진, 어
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윙렛 등을 탑재
하고 있다.

아울러 보잉 737 맥스8 기종은 기존
에 보유항공기종인 737-NG기종과 파
일럿, 정비, 부품 등이 연계가 가능해

호환성이 높다.

파일럿의 경우, CBT(Computer Based
Training)을 통해 기존 737NG 파일럿
의 737 MAX 조종이 가능하며, 정비
부문에 있어서도 NG800기종과 70%이
상 동일한 부품을 사용해 정비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다.

항공기 운항 중에도 운항 정보 및
정비 결함 사항에 대해 시스템을 통
해 공유가 가능해 그리드드 타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객실 내부의 경우, 스카이 인터리어
가 적용되어 유선형 디자인의 천장화
LED조명, 넓은 수납공간으로 쾌적한
공간 분위기를 제공한다.

이스타항공은 하반기 B737-700기종
반납이 예정되어 있어, 이번 도입으
로 B737-800NG, B737-900ER, B737-
MAX8 운영을 통한 기종 세대교체를
맛있게 된다. /기동취재반

올 1분기 정부곳간 풍성... 국세수입 8조9000억 ↑

법인세 · 양도소득세 등 증가세 두드러져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9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
정동향에 따르면 1~3월 누적 국세수
입은 7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
비 8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세수진도율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수진도율이란 1
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걷은 세금
의 비율을 의미한다. 실제로 3월까지
세수진도율은 29.4%로 전년 동기 대

비 1.6%포인트 향상됐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3월까
지 20조8000억원이 걸렸는데, 전년에
비해 3조6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소득세 증가도 두드러졌다. 3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부동
산 거래 확대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부가가치세는 16
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 사업 280조

2000억원 중 3월까지 집행액은 80조
원으로 집계됐다. 집행률은 31.0%다.

1~3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
합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다. 누
적 총수입은 12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8000억원 늘었고, 총지
출은 122조9000억원으로 5조6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10조5000억원 적자
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
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8조
8000억원)를 제외해 산출한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50조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2조7000억원
증가했다. /뉴시스

하나로마트 전북협의회, 사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결의

전북농협은 지난 9일 전북본부에
서 관내 하나로마트 180개를 대표
하는 하나로마트 선도농협 전북협
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10일 밝
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협의회는 신선했
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 전북도민
으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하나로마
트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또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
매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6차산업

자·마을기업 등 농업인 생산기업 상
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산물 제값 받기를 통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농협 유재도 본부
장은 하나로마트 사업은 판매농협 구
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 아
니라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이끌
어 내는 첨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반



전은 · 전북한의사회 JB카드제휴 조인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9일 본점 9
층 회의실에서 “전북은행-전북한의사
회 JB카드제휴”를 위한 조인식을 가졌
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제휴 조인식에는 전북은행
김태진 부행장, 전북한의사회 양선호
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
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06년부터 업무
제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전북은행은 오는 6월 프리미엄 서비
스 제휴카드를 새롭게 출시함에 따라
전북한의사회소속 회원들을 위한 특
별한 금융 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인식을 마련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한의사회
소속회원들을 위해 제휴카드 출시 일
정에 맞춰 제휴카드 런칭 프로모션을
통해 별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LG전자, G7 씽큐 구매시 중고폰 보상 폐택 강화

LG전자가 G7 씽큐를 구매하면 고객
에게 주는 중고폰 보상 혜택을 강화했
다.

LG전자는 차기 전략 프리미엄 스마
트폰 LG G7 씽큐(ThinQ) 구매 시 LG
스마트폰 기준 최대 16만원(G5)을 보
상한다고 밝혔다. 기존 12만원에서 4
만원 상향한 것이다.

보상폰 대상도 늘렸다. LG전자는 현
재 운용 중인 G시리즈와 V시리즈 제
품군 6종 한정으로 안심 보상 프로그
램을 기획했으나 G시리즈 패밀리 제
품(G3 Cat6, G3 Screen, G3A 등), G 플
렉스, G프로, Gx, 부 시 시리즈까지 확대
했다.

타사 경쟁 제품들도 출고가격과 시
기를 고려해 보상 범위를 확정했다.
애플의 아이폰6S플러스는 18만5000원,
삼성의 갤럭시S7엣지는 보상이가 17
만원이다. /뉴시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